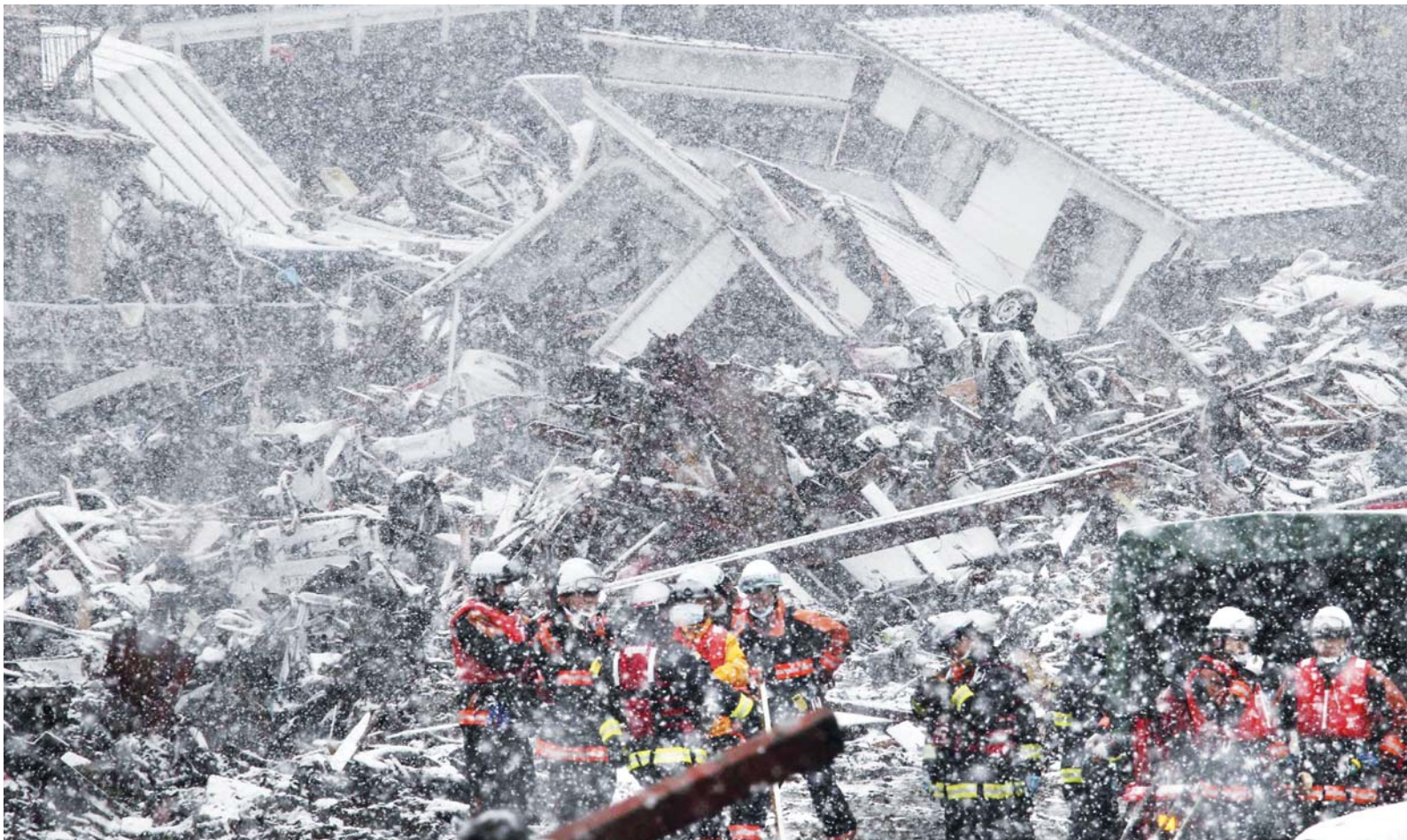


당신의 재산증식 동반자

정기예금 1년 5.11%(복리)

동양저축은행 226-0180

단기 4344년 (음력 2월 13일)



논속 생존자 수색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초도화된 일본 미나미산리쿠에서 16일 구조대원들이 쏟아지는 눈발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건물 잔해를 헤치며 생존자 수색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설 속 수색·구조작업 박차

이재민 53만명 물·식량 부족 고통 여전

사망·실종 공식확인 1만명 넘어서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사망·실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공식 집계된 가운데 구조와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방사능 누출과 때 아닌 폭설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또 가까스로 폭설을 견딘 생존자들도 물과 식량 부족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사망자는 미야기, 이와테현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676명, 실종자는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845명으로 모두 1만1521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2만5000여명이 구조됐으나 대다수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자위대와 경찰 병력 약 8만명은 이날 미야기현을 비롯한 피해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폭설이 내리는 등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전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 때문에 구호 단체들이 인근 재해 지역으로부터 철수를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로 마련된 2600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란민 53만여명도 식량과 약품이 부족한 것은 물론 전력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히가리와 추위에 시달리는 참혹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전력은 전력 공급 부족 사태가 심화하면서 도쿄 등지의 5백만 가구를 대상으로 15일과 16일 이틀간 한차례에 3시간씩 돌아가며 송전을 제한했다.

우리 교민들의 대피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샌다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정부 신속대응팀이 주 샌다이 총영사관 차장을 이송, 지금까지 교민 146명을 5차례에 걸쳐 니가타현과 아키타현으로 이송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214명의 교민이 샌다이에서 빠져나왔다.



한편, 세계은행 등 전문기관들은 이번 일본의 지진피해 복구에는 지난 1995년 고베 지진 때보다 긴, 5년이 소요되고 최소한 180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4호기 연료봉 핵분열 연쇄반응 우려

외벽 8m 뚫려... 기준치 6000배 넘는 방사능 검출 공포 확산

일본 대지진

관련기사 ▶ 2·3·4·6·8면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를 맞은 일본이 핵과 여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대부분 원자로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방사능 누출이 현실화되면서 이어 핵연료봉의 핵분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데다 동북부에 이어 수도권 남쪽 내

륙지방에서도 강진이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16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4호기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호기는 지난 11일 강진 당시 정기점검 중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전날에 이어 이틀째 폭발과 화재가 이어지는데다 건물 외벽에 8m짜리 구멍까지 뚫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도쿄전력은 "4호기의 사용 후 연료봉이 공기에 노출됐을 수 있다"며 "핵분열 연쇄 반응의 재개 가능성이 0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용 후 핵연료가 핵분열할 경우 대폭발 참사로 직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가동 중인 원자로가 보호막 없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어서 방사능 대량 노출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5호기와 6호기도 온도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2호기의 격납용기가 파손됐으며,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호기의 노심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고 원전에서는 끊임없이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전 정문 주변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인 1밀리시버트를 훨씬 뛰어넘는 시간당 10밀리시버트의 고농도 방사선량이 측정됐으며, 원전에서 20~30km 떨어진 이른바 육내 대피구역에서도 기준치의 6000배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하자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ASN)는 15일(현지 시각)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국제

원자력사고등급(INES) 기준으로 최고등급(7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6등급으로 조정했다. INES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사고의 심각성 정도를 알리고자 도입한 분류 체계로, 7등급으로 분류된 경우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 일본 운수성은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들이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전 반경 30km 지역에 비행금지구역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밤 10시 28분께 수도 도쿄(東京)의 남쪽인 시즈오카(静岡) 동부 지역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대지진의 공포가 동북부뿐만 아니라 남부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연합뉴스

박지사 시·군순방 영광군부터

"원전 안전 점검이 최우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직접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제1원전 원자로 6기 가운데 4기에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대비 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광군을 시작으로 민선 5기 첫 22개 시·군 순방에 나서 도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사는 애초 영광군청에서 현안 업무 청취 및 도민과의 대화 끝난

뒤 영광 대마산단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영광 원전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원자력 선진국인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폭발·화재 사고 및 방사능 누출 등을 계기로 영광 원전을 방문, 주요 시설 및 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지사는 이날 영광원전 시스템을 비롯, 내진 설계 기준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현황을 보고받고 유사시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22개 시·군 순방은 오는 5월 9일 목포·신안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지용기자 dok2000@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한 법률상담과 소송업무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학력 및 경력 ◇

- 광주고교, 서울법대
-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 청주지법, 광주지법 판사
- 광주지법, 영암지법 판사
- 광주지법 해남지원(영진, 원도, 진도 군법원) 판사

변호사 권세진 올림

- 업무개시: 2011년 3월 14일
- 사무실: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리리 376-5 (해남지원 옆)
- 전 화: (061) 535-0230, 0231
- 팩 스: (061) 535-0226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스마트한 바로 지금! 세상이 열린다!

ALL - IN - ONE SERVICE (올인원서비스)

오프라인 지면광고에 수록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페이지에 바로 접속하고 또한 번외정보 어플을 통하여 번외정보 검색이 가능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고객의 배움을 극대화하는 한국전 화변호부의 새로운 온,오프라인 통합서비스입니다.

올인원 서비스 상담 문의 : (062) 514-1144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KOTEA TELEPHONE DIRECTORY CO., LTD